

“템플스테이 100만 시대 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2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개최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의 목표의식 공유와 불교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이 4월 9~11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마곡사에서 '제2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 연구·학술 세미나, 문화공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시연, 템플스테이에 기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을 위한 특별강연 유승민의 '커피, 오해해서 미안해', 선재 스님의 '음식에서 찾은 우리의 건강(사찰음식)', 이운재 명인의 '95°C 뜨거운 물을 녹여줘(녹차)'도 진행됐다. 또 군산대 권기욱 교수의 특강 '포행과 걷기의 운동과학'도 마련됐다.

9일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중훈 스님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문화 공연.

은 "외국인들은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후 평화롭다고 이야기한다. 고급 호텔처럼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비싼 레스토랑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밥상이지만 많은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비운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한국불교가 가진 자산으로 템플스테이 100만인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08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자와 실무자 300여 명, 템플스테이 참가 외국인 15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 진행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커피에 대한 강연을 들은 진해 보담사의 최유진 간사는 "커피도 건강음식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커피

피를 사찰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공연은 무주 안국사의 태권 도시범, 골굴사 선무도, 도신 스님과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등과 동참한 사찰 실무자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이튿날인 10일 마곡사 앞마당에서는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 스님들과 템플스테이

이 실무자들은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그리기, 차 시연, 소원 조 만들기 등을 지도했다.

통도사 이재현 간사는 "이번 문화축제를 통해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들과 실무자들과 체험을 공유하면서 미처 알지 못한 것을 많이 배웠고, 사명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템플스테이 모범사찰과 개인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총무원장장은 대승사 철산 스님·삼화사 원명 스님·약천사 성원 스님이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월정사 월수곡·백담사 백기 스님·전등사 김태영씨에게 돌아갔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은 천은사 김혜경·모각사 이석·골굴사 설현희 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행사에는 마곡사 원혜 스님, 수덕사 용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중훈 스님,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조창희 총무실장, 이준원 공주시장 등이 참석해 템플스테이 문화 축제를 격려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100자 뉴스

월정사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숲길걷기대회

평창 월정사(주지 정넉)가 5월 8일 제7회 오대산 천년숲길걷기대회를 개최한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및 생명, 평화, 나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총길 10km 구간의 숲길체험 뿐만 아니라 달구지 체험, 사진촬영전시회, 오대산음식시연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서울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 종합안내실 설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4월 13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종합안내실'을 개소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종합안내실은 입회상담실, 자원봉사자 오픈상담실, 중앙상담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돼 상담, 민원 등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 개소식에서 관장 가섭 스님은 "종합안내실 설치로 4만 5000여 어르신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불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02)6911-9528

박선주 기자

서울 심곡암 효문화 산꽃축제 열려

서울 정릉 심곡암(주지 원경)이 5월 9일 정릉 일대에서 '제23회 심곡암 효문화 산꽃 축제'를 개최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꽃축제는 전통다례시연을 시작으로 효주제 국악 공연과 연극, 시 낭송 등의 프로그램과 불자 가수 장미화 씨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02)914-8860

노덕현 기자

범불농 2010 도농교류 시행단체 선정

범불농어촌돕기운동본부(이사장 성우, 이하 범불농)가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협력사업 시행단체로 선정됐다. 도농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된 범불농은 농어촌 체험 및 '공양미는 우리쌀로', '자비의 안테나 달기 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범불농은 4월 24일 입실치마를 체험을 시작으로 5월 느리실마를 6월 우포가시연꽃마를 7월 연천나룻배마를 8월 비랑나루마를 9월 비화봉마를 등에서 농어촌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02)3270-3353. www.famlove.or.kr

노덕현 기자

승산노인복지관 개관5주년 행사·합동결혼식

승산노인복지관(관장 송호식)은 개관 5주년을 맞아 4월 22일 오전 10시 복지관 3층 강당에서 개관 5주년 기념식 및 '제6회 무료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무료합동결혼식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 부부나 다문화 가정 부부를 위한 행사로 올해에는 5쌍을 부부가식을 올린다. 결혼식에 필요한 신부 화장, 드레스, 사진, 피로연 등 모든 경비는 복지관이 무료 제공한다.

박선주 기자

미륵사지석탑 기단 하부 백제 진단유물 출토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진)는 "미륵사지석탑 기단 하부에서 진단구(鎭壇具)로 추정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4월 16일 발표했다. 진단구는 탐지나 건물지 붕괴 방지를 위해 액을 예방하려는 의식으로 땅 속에 묻는 그릇 등이다. 유물들은 미륵사지석탑 1층에서 남측 통로(폭 1.5m, 길이 3.5m) 바닥층 해체과정에서 출토됐다. 출토된 유물들은 토제 나발(螺髮, 부처의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 겹띠기처럼 틀어 말린 모양, 금동 장식편, 유리구슬, 청동뿔꽃이, 청동구슬 등 27종 290여 점으로 모두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이은정 기자

한국불교학회 '순례' 국제학술회의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4월 1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순례'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행사에는 선목해자 스님(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주)이 '108산사 순례-21세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패러다임'을, 박성배 교수(뉴욕 스토니브룩대)가 '21세기의 보현행원'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S.R. 바트 인도 델리대 교수가 '인도에서의 순례'를, 왕방위 중국 북경대 교수가 '중국에서의 순례'를, 오리토미 모토히로 일본 종지원대 교수는 '일본에서의 성지순례'를 주제로 나라별 성지순례의 의미를 조망했다.

해자 스님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다. 신심과 환희심을 배양할 수 있는 수행법의 하나로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례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배 교수는 "자신을 돌아보는

순례는 보현행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결국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S.R. 바트 인도 델리대 교수는 '인도에서의 순례'를 통해 "인도대륙은 전체가 하나의 장려하고 지속적인 성지순례지"라며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 성지순례 종교의례가 아닌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여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교학인 순례 코스는 여행 상품과도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유엔 스텝재단은 원호 트레일(trail, 길)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원호 트레일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원호 대사가 중간에 발길을 돌려 돌아온 여정을 관광 상품화한 명칭이다. 경주를 출발해 경산-문경-여주-수원-평택-괴산-구미-경주를 잇는 697km 코스다.

원호 트레일이 코스를 중심으로 한 순례라면, 108산사순례단은 신행을 중심으로 한 순례길이다. 열다섯 전 입적한 법정 스님의 행적을 따라 순례하는 법정 트레일 등 주제별 여행을 신행과 포교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어나는 기자



왼쪽부터 조성택 고려대 교수, 해자 스님, 박성배 교수.

운암 김성숙 41주기 추모제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 1898~1969) 서거 41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내년부터는 서울 봉은사에서 스님의 추모제가 봉행될 전망이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4월 12일 국립현충원 임시정부 묘역에서 운암 김성숙 서거 4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추모제에

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이회백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장, 김성숙 선생 유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 1898~1969)은 봉선사 승려 신분으로 유일하게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선민족전선연맹 선전부장 등을 지냈다.

이상연 기자

여주군 장애인 복지관 개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사회복지장 혜경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이기수 여주군수, 이법관 국회의원, 안태근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장, 김수영 여주경찰서서장,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은메달리스트 김명진씨(가운데)가 여주군 장애인 복지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여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박선주 기자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님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에게 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는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심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발원문, 불설야사어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간계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